

장마철 기승 장염...환자 22% 9세 이하



건강 바로 알기 여름철 어린이 장염

강균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무더위와 잦은 비가 반복되는 여름 장마철, 기온과 습도가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에서는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장염에 노출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염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많이 걸리는 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염 전체 환자수는 4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 중 9세 이하 연령대가 22%인 92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대는 14%(58만여명) 소이었다. 전체 3명 중 1명이 어린이와 청소년인 셈이다.

장염은 '감염성 장염'과 '비감염성 장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름철에는 어패류나 날 음식 등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감염성 장염이 특히 기승을 부린다.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보통은 수분섭취와 휴식을 통해 호전되기도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증상이 쉽게 악화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아이들은 체내에 보유한 수분과 체액이 많지 않아 장염 주요 증상인 구토, 설사 횟수가 적더라도 탈수증세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은 체내 수분의 10%만 빠져도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10세미만, 탈수 진행 빨라 각별한 주의 필요=감염성 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세균(콜레라, 대장균, 이질, 장티푸스, 예르시니아 등), 바이러스

기온·습도 높아 세균 번식 활발

구토·설사증세로 인한 탈수 위험

물·보리차·이온음료 등 수분 섭취

손씻기 중요...날 음식은 피해야

감염성 장염 원인·증상

세균·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



◇예방엔 철저한 개인위생과 음식물 관리 필수, 충분한 수분보충=여름철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식재료를 고온에서 충분히 익혀 조리하는 것이 좋다. 또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신선한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바로 섭취하고, 물도 가급적 끓여 먹는 것이 좋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조리도구나 조리과정에서도 세균 번식을 막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조리도구는 자주 소독하고, 위생관리가 어려운 칼, 도마는 가급적 채소용과 육류·어패류용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해 교차오염을 막는다. 여의치 않다면 채소·육류·어패류 손으로 조리하고, 각 과정마다 세제를 이용해 칼과 도마를 세척해주는 좋다.

구토나 설사 등 장염 증상이 나타나면 물, 보리차, 이온음료로 수분을 보충해 탈수를 막아야 하며 아이들은 탈수가 조금만 와도 소변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증상이 심해가 나타나는데 탈수 상태를 판단해 수액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상이 심하면 X-레이나 CT 검사, 원인균 감별을 위한 대변 배양검사 등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손씻기를 해주고, 장염 증상이 있다면 식기와 세면 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장염은 한번 걸리면 재발 확률도 높아 앓고 난 후 식습관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채희중 기자 cae@kwangju.co.kr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찾아가는 건강아파트' 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박종석)는 최근 광주시 동구 학동 무등산아이파크 관리사무실에서 광주 동구보건소·광주전남 지역암센터·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혈관튼튼 건강아파트' 건강캠페인을 열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혈관노화도 검사를 비롯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높였다.

박종석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 신뢰받는 건강검진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제공>

전남대치과병원, 국립치과대 최초 기관생명윤리위 평가 인증

전남대치과병원(병원장 조진형)이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중 최초로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를 최종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평가·인증제는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 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한다.

전남대치과병원 생명윤리위원회심사위원회의 이번 평가·인증에서 서류·현장·종합평가 등 3

단계를 거쳐 5개 항목, 40개의 세부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6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전남대치과병원은 전국 6개 국립대학교병원 중 최초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았다.

조진형 병원장은 "전남대치과병원 생명윤리위원회가 부족한 인력, 예산 등 열악한 상황에서 큰 성과를 내준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외 임상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광주테크노파크와 의료산업 발전·연구활성화 협력

업무협약·교류협력 세미나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는 최근 의성관 5층 김동국 홀에서 의료산업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 후 진행된 교류협력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병원-기업 협력 연구 활성화(조선대병원 최지은 대외협력실장) ▲첨단재생의료연구와 사업화(조선대병원 조용진 보건의료사업부장) ▲광주TP 인프라&사업 추진 현황 서남권원자력과학기술원 유치 추진현황(광주테크노파크 박우진 의료산업지원센터장) 등이 발표됐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은 "빠르게 변하는 의료산업 현장을 대응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유기적으로 소통하자"며 "광주테크노파크도 조선대 병원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중 조선대병원장은 "광주테크노파크와 조선대병원간에 융복합 연구 및 첨단재생의료연구가 새병원을 신축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최첨단 디지털 의료 신기술 구축과

AI 플랫폼을 적극 도입하여 조선대병원이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ae@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주관기관 선정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사진)이 기존 보행 재활 로봇 모닝워크 S200(큐렉소)에 이어 3종의 신규 재활 로봇을 도입, 보행 및 상지 기능의 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최첨단 재활치료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다중 재활로봇 도입은 광주기독병원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2023년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전체 사업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광주기독병원은 기립경사보행로봇인 알봇 플러스, 착용형 지면보행로봇인 엔젤렉스 M20 보행재활로봇과 상지(인지) 재활로봇인 리블레스 플러스(에이치로보틱스)까지 3종의 재활로봇을 신규 도입한다.

또 기존 보유중인 발판 기반형 보행로봇인 모닝워크 S200과 함께 총 4종의 최신 재활로봇장비를 갖추고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의 보행 기능, 상지기능, 인지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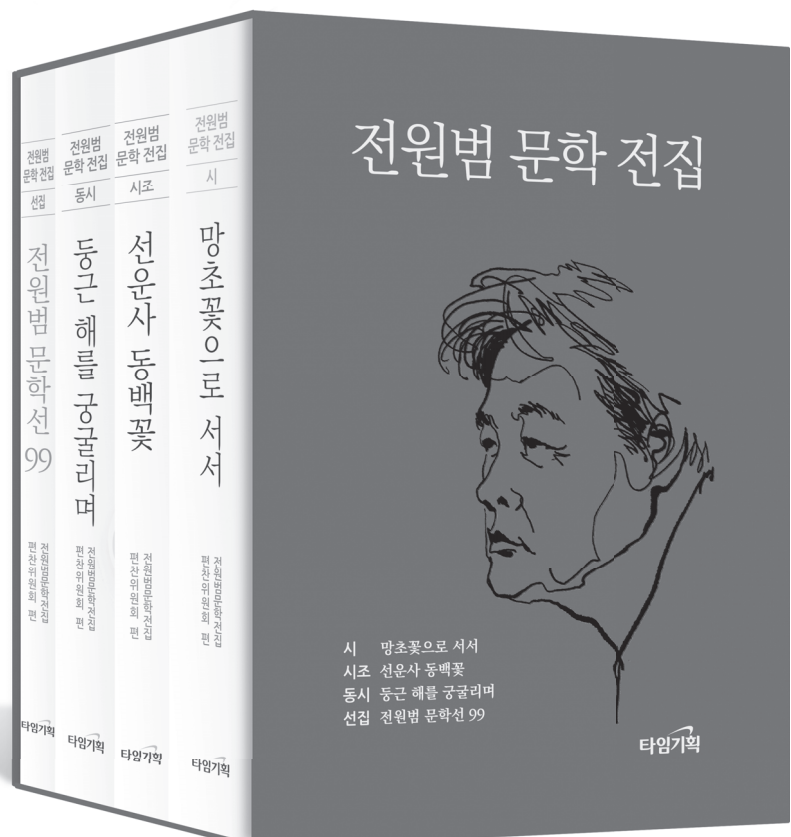


회복을 위한 '질향상', '회복 주기별' 맞춤형 로봇치료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로봇재활치료의 프로토콜 개발과 재활 로봇을 실증할 수 있는 다중 재활로봇 특화센터를 수립하게 됐다.

특히 침상 보행, 회복기 보행, 착용형 보행, 자율 보행 등 4단계 보행 재활치료 시스템을 갖추게 돼 체계적이고 질 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재활치료센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는 환자 개인의 운동 능력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정상 보행이나 움직임에 가까운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훈련할 수 있고 정량화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희중 기자 cae@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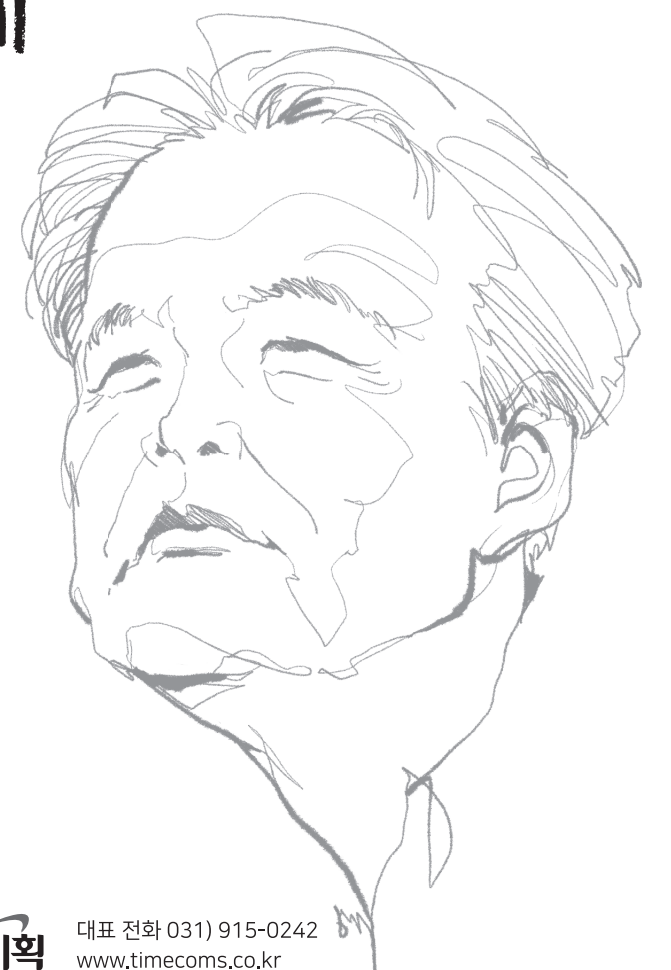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정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